



정읍 신태인농협, 고추재배농가 영농기술교육 지원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중)은 최근 신태인 관내 고추 재배농가를 100여명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종묘 강인진 지사장과 농우바이오 전우용 팀장을 모시고, 고추초기육묘관리 기술 및 병해충 방제 기술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황휘중 조합장은 이날 행사에서 "갑진년 새해, 우리 농업인의 희망찬 한해를 기원하며,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농업인의 실익 증진과 정읍 고추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북면, 신년맞이 3공단 도로변 대청소 실시

정읍시 북면은 지난 19일 북면3공단 도로변 대청소를 했다. 이번 활동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첫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과 상생일자리 참여자, 환경관리원등 10여명은 북면농공단지, 3공단 입구까지의 도로변을 정비하며 생활폐기물 2톤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용원 면장은 "해빙기에 맞춰 북면을 산뜻하게 정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앞으로도 쾌적한 북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 DC마트 강규남 대표,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 DC마트 강규남 대표가 지난 19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실시한 진춘성 군수의 연초방문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강규남 대표는 "작은 기부이지만 관내의 어려운 학생에게 작은 희망의 꽃으로 피워냈으면 한다. 진안의 지역인재 육성으로 희망찬 2024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심과 나눔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진춘성 이사장은 "나눔경영을 실천하며 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은 후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후원금은 지역교육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 DC마트는 진안고원 시장 내 종합생활용품점으로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뿐만 아니라 이웃돕기 물품 등을 기탁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후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업체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촌지도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장수군 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는 22일 장수군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지난해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있다. 한동근 회장은 "농촌지도자회의 이념인 우애·봉사·참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더불어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지역발전엔 헌신하며 이웃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귀한 성금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유교문화 구심점 · 전통문화 보급 기여

고창군 무장향교, 42대 김형석 전교 취임

고창군 무장향교 전교 이취임식이 22일 무장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41대 양완수 전교가 이임하고 제42대 김형석 전교가 취임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등 향교 유림과 지역인사, 향교 임원 및 가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완수 전임 전교는 이임사에서 "존경하는 향교 유림 지도자분들께서 일기 동안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유림 회원들께서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무장향교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석 신임 전교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향교의 정신을 잘살려 선비정신의 함양과 유림의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 순간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성현의 학문과 덕행을 본받아 이를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무장향교의 활성화와 일요학교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인성교육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장향교는 1420년 유교 교육을 위한 지방 공립학교로 창건된 이래 유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



며, 춘·추기 석전대제, 향교일요학교, 기로연 등을 개최하며 전통문화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사회의 원로이자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의 오랜 전통 문화를 잘 보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창군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은 물론 유교문화와 향토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 고창군 3개향교(고창, 무장, 흥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풍년칼국수·남원 소상공인 회원들, 어르신 점심 봉사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도동동 우리동네 나눔가게 1호점인 풍년 칼국수에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에게 무료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으며, 남원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이 점심 나눔에서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음식을 드신 한 어르신은 "오늘 비도 오고 쌀쌀했는데 따뜻한 식사를 받아 몸이 따뜻해져 좋았고, 매일 혼자 집에만 있다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니 소풍을 나온 것 같이 기분이 즐겁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도동동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도 선행을 실천해 주는 풍년칼국수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날 함께 고생해 주신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님들에게도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동동은 우리 동네 나눔가게 1호점, 남원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티앤제이건설, 완주군 지역사랑상품권 천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22일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 고대유 회장과 김지혜 사장이 완주군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해달라며 지역사랑상품권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가 지난해 가입한 대한적십자사 고액기부자클럽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RCHC)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상품권은 완주군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RCHC란 적십자사에 1억원 이상 기부를 약속한 모임으로 전북 도내 1~20호까지 가입되어 있으며,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는 전북 20호 회원이다. 한편, 티앤제이건설주식회사는 2016년 완주군에 통합사육을 설립한 이후 연탄·백미 지원, 겨울 이불·수면 바지 나눔, 경로당 TV 설치,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등 매년 군민들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완주=염태복 기자



진안군 용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진안군 용담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철민)는 22일 2024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강했다. 2024년 용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주요 강좌로는 난타, 라인댄스, 뜨개 교실, 노래 교실, 밴드 교실, 배드민턴 등 6개 강좌이다. 용담면은 주요 강좌 외에도 순차적으로 요가 교실, 풍물 교실, 목공교실 등의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러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용담면민의 여가 증진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주민주도의 자치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학진 주민자치위원장은 "풍물 교실의 경우,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단합과 풍성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것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민 면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용담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알림

-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신년 교례회 및 동문 대상 시상식 = 일시: 25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1층 가인홀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제1회 문화예술대상 시상식 및 문화예술공연 = 일시: 27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백승회관 연회장,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주관: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문의: 063-231-6669, 285-6676

'순창맛페스타' 발효테마파크 일원서 성황리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발효테마파크 일원에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열린 '순창맛페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순창맛페스타'는 순창의 맛과 문화를 완벽하게 담아낸 특별한 체험의 장으로, 우석대와 전주대 RIS사업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순창군지부, 순창군 출연기관인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손을 잡고 순창의 12가지 맛과 관광을 결합하여 맛의 고장 순창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순창군에 따르면 순창발효테마파크 특성상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 아이들과 같이 발효음식 체험을 하며 추억을 만들었으며, 행사 첫날에는 겨울비가 내리는 악천후에도 겨울 정취를 만끽하려는 인파로 종일 북적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을 위한 고추장 만들기, 미니메주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미생물캐릭터를 이용한 마카롱 만들기 등 매시간 매진이 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이번 행사에 가장 인기있었던 체험종은 겨울간식존이었으며, 가족들이 따뜻한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며 저렴한 가격으로 겨울간식을 구워 먹을 수 있어 아이들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순창발효관광재단 직원들이 만들어낸 12가지 동물



컨셉인 댄스 퍼레이드도 인기가 최고였다. 첫날에는 겨울비로 인해 고추장 상설마당에서 진행했지만, 둘째 날에는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이들이 그 행진을 즐길 수 있었다. 순창군 출연기관 순창발효관광재단 선은숙 대표는 "지역의 맛을 알리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순창맛페스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순창의 맛과 관광을 결합해 순창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군의회 · 영동군의회, 고향사랑 상호 기부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와 영동군의회(의장 이승주)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식을 열고 이웃 지자체 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의 물꼬를 텄다. 지난 19일 무주군의회와 영동군의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식이 열렸다. 이날 상호기부식은 영동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회를 방문해 기부식을 하고 다 함께 영동군의회로 이동해 한 차례 더 기부식을 가졌다. 양 의회의 고향사랑기부 상호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에 쓰고자 하는 고민이 서로 통하며 성사됐다. 평소 양 지자체 간 현안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온 이해양 의장과 이승주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대화를 하던 중 양 의회가 상호기부를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무주군과 영동군은 행정구역이 맞닿아있어 평소 많은 교류를 해왔으며 산업구조와 주민 생활상이 비슷하다. 의회와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추진하는 점도 같다. 그런데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주민이나 사업자가 주소지에 기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한다. 양 의회는 이 점에 주목했고 모든 의원이 서로의 지역에 기부하기로 했



다. 고향사랑기부 규모는 법정한도액 이내에서 의원이 자유롭게 기부한다. 두 의장은 이날 상호기부식에서 "무주군의회와 영동군의회가 상호기부로 물꼬를 트고 많은 주민들이 서로 기부하면 두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 재원마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성수면, 32개 마을 순회 좌담회 개최

진안군 성수면(면장 최용주)은 지난 11일 원외공마을을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성수면 발전과 화합을 위한 마을 순회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좌담회는 성수면장을 비롯한 부면장, 각 팀장, 농업인상담소장 등이 함께 성수면 전체 32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군정 홍보 및 현안 사업 설명, 마을 건의사항 접수 및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성수면은 면민과 소통하고 희망찬 면정을 이끌어가고자 매년 마을 순회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새롭고 활기찬 출발을 다짐하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좌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최용주 면장은 "이번 좌담회는 마을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다"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마을 순회 좌담회를 통해 받은 소중한 의견은 면민들의 행복과 성



수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